

끼릴의 생애전에 대한 소고(Ⅱ)

- 간략 생애전 (Кратко житие на Кирил)에 기술된
'브레갈니짜(Брегалница)에서의 계몽 활동'에 관하여

신 우 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I. 고대 불가리아 문헌들.

- 1) 성 끼릴의 간략 생애전(Кратко житие на Кирил философ)
- 2) 테살로니키 전설 (Солунска легенда)
- 3) 메토디를 위한 슬루즈바(Служба за Методий)
- 5) 성 끼릴의 뵤블로즈노 쥐띠에(Проложно житие на Кирила)

II. 고대 러시아 문헌

III. 고대 그리스 문헌

- 1) 클리멘트 오흐리드스끼의 상세 생애전(Климентово пространно житие)
- 2) 클리멘트 오흐리드스끼의 간략 생애전
(오흐리드 전설 (Legenda Ochridica)이라고도 불리움)
- 3) 나움의 그리스 생애전(마케도니아 전설이라고도 불리움)

IV. 라틴 문헌

- 1) Legenda sanctorum Cyrilli et Methodii patronorum Moraviae
(모라비아 전설이라고도 불리움)
- 2) Legenda de s. Ludmilla (체코전설이라고도 불리움)
- 3) Regnum Sclavorum presbyteri Diocleatis (두플레아 연대기)

일반적으로 슬라브학계에서는 슬라브문화 개화의 시초를 성 기릴과 메또디가 서슬라브인들이 살던 모라비아에 파견되어 계몽활동을 펴던 때로 보고 있다.

851년 성 기릴이 24세가 되던 해, 비잔틴의 황제 미하일(Михаил) 3세는 소아시아에 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던 당시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사라센으로 성 기릴과 함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된다.¹⁾ 그 목적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이슬람교의 기독교에 대한 모독, 즉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어 신은 유일하며 초월적인 데 반해 기독교는 삼위일체론(Света тройца)을 내세워 유일한 하나님 존재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은 삼위- 성부(свети отец), 성자(свети син), 성신(свети дух)-의 세 역할을 동시에 겸하여 구현된다는 가르침에 반감을 든 사라센에 대해 비잔틴 정교의 이념적 체계를 옹호하기 위함이었다.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비잔틴으로 돌아온(855년경) 성 기릴은 종교생활과 학문에 몰두기 위해 (...н мѣлѣтъ творе без престанїа къ бѣ, тъкмо кнїгамн бесѣдѣс- Пр.ж.К. VII장²⁾) 당시 소아시아 올림푸스산의 한 수도원에 칩거해 있던 자신의 형인 수도사 메또디에게로 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몇 년후 히브리족과 사라센족으로부터 그들의 종교를 믿도록 강요를 당하던 하자르족³⁾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당시 비잔틴제국의 수도)에 도착한다. 요구인 즉 그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줄 수 있다면 신이 내린 왕국인 비잔틴의 종교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황제 미하일3세는 항상 변방을 위협하던 하자르족과의 관계개선도 도모

1) Донка Петканова, *Константин-Кирил, денница на славянския род* (София, 1994), с. 37.

2) 약어 Пр.ж.К.는 기릴의 상세 생애전(Пространно житие на Кирил)을 나타내며 메또디의 상세 생애전은 약어 Пр.ж.М.로 표기하기로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인용된 이 두 생애전은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Събрани съчинения*, т.3, София, 1973에 인용된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인 1469년의 성 기릴의 상세 생애전(불가리아본)과 12세기 러시아 필사본인 성 메또디의 상세 생애전을 사용하였다.

3) 투르크 계의 유목민족으로 불가강과 드네프르강사이, 아조프해에서 카스피해, 그리고 남부로는 까프카즈 산맥에 까지 퍼져있던 하자르는 7세기 중엽에 건국된다(Хрзарски каганат). 965년 기에프국의 스바토슬라프 이고레비치에 의해 멸망한다. 당시 불가리아의 구성종족인 원불가리아인(Прабългари)도 하자르국에 속해 있었다.

할 겸 종교적인 우위도 확고히 할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에 이미 경험이 있던 성 끼릴을 다시 하자르국으로 보내게 된다.(860년경) 이때는 성 메또디도 동행하게 되며 이로 부터 그들은 성 끼릴이 로마에서 사망할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당시 서방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세력이 팽창하여 로마교황을 배후에 두고 서슬라브족의 모라비아 대공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립하고 슬라브족 문화의 자주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던 모라비아의 로스피슬라프공은 주변국가로 부터의 라틴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라틴어대신 슬라브어를 전파하고 카톨릭대신 기독교를 수용하기 위해 862년 비잔틴의 황제 미하일 3세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게 된다.

비잔틴제국은 외교정책으로서 동방기독교를 앞세운 유화·팽창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항상 로마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프랑크 왕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국경을 맞대고 있던 불가리아(이미 7세기에 발칸반도에 정착하여 제 슬라브족들을 중심으로 681년 제1 불가리아 왕국을 건립함)를 그들의 가장 위협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⁴⁾

비잔틴은 서방으로의 세력확장의 호기로 보고 865년 이미 두 차례 사라센과 하자르국에서의 활동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성 끼릴을 모라비아 공국에 다시 보내게 된 것이다. 이때 성 끼릴은 본인이 만든 글라골문자(глаголица)를 가지고 간다.(Шьд же философъ, по прьвому обычаю на млѣтвѣ се въдасть, и съ нѣмн пошпѣшннкы. Въскортъ же бѣ емѣ явн, послѣшас млѣтвы своих рабѣ, и абіе сложн писмена, и начеть бесѣдѣ писати еѣгѣскѣ...Пр.ж.К. XIV장) 성 끼릴과 메또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간 제자들은 약 23년간(끼릴은 로마에서 869년 사망) 슬라브어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와 슬라브문자 전파및 복음서번역에 힘을 기울인다.

4) Иван Дуйчев, Въпросът за византийско-славянските отношения и византийските опити за създаване на славянска азбука през първата половина на IX век- Известия на института за българска история, 7 (София, 1957), с. 242.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를 되새겨 본다면 바로 성 끼릴과 메또디의 모라비아에서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슬라브 문화의 꽃은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불가리아에서의 슬라브문화의 개화기는 왕 보리스 1세(Борис)가 기독교를 공식수용한 지 약 20년이 지난 885년 메또디가 사망한 후 모라비아에서 카톨릭교의 억압으로 쫓겨나 불가리아로 도망온 그들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즉 그들의 생애를 훑어볼 때 이것은 성 끼릴과 메또디는 당시 비잔틴제국과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슬라브족들을 비롯하여 불가리아인들(제1 불가리아왕국이 수립된 후 서로 융화된 불가르-슬라브족)과는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 불가리아 문헌들 중 그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사실의 기술에 있어서도 그 정확성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성 끼릴과 메또디의 상세생애전(Пространно житие)에도 성 끼릴과 메또디가 불가리아에서의 계몽활동이나 기독교 수용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베.야기치(В.Ягич)를 비롯한 여러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끼릴과 메또디의 문자의 창제와 그와 관련된 슬라브인들(불가리아인들을 포함하여)에 대한 계몽활동의 시점을 모라비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이전에 불가리아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성 끼릴과 메또디가 접촉하고 계몽을 한 첫 번째 슬라브인들은 바로 불가리아인들라며 야기치의 의견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이.오기엔코(Іван Огієнко)는 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두 형제가 불가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5) 신우태, "성 끼릴과 메또디의 제자들," 『슬라브학보』, 제13권 2호, 1998, pp. 439-459 참조.

6) V. Jagić, *Entstehungsgeschichte der kirchenslavischen Sprache* (Berlin, 1913), s. 5.

7) Іван Огієнко, *Костянтин і Мефодій, їх життя та діяльність*, т. II (Варшава, 1928), с. 181-197.

성 끼릴과 메또디의 이러한 불가리아에서의 활동(기간은 차치하고라도)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상세생애전에는 기술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늦게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문헌들에는 상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술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슬라브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시점이 비잔틴 황제 미하일 3세에 의한 모라비아로의 파견이라는 데 역점이 두어지고 있고 그들의 활동대상과 글라골문자(глаголица)의 보급이 그곳의 서슬라브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불가리아에서의 활동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문헌들이 끼릴과 메또디의 생애전을 제외한 제 2차적 문헌들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보게될 이러한 문헌들 중 몇 가지는 시기적으로도 늦게 쓰여진 것들이고 역사적 기술이나 그 정확성이 아무래도 두 형제의 생애전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이러한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성 끼릴과 메또디가 불가리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또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몇가지 가설들을 세워보고자 한다.

I. 고대 불가리아 문헌들.

1) 성 끼릴의 간략 생애전⁸⁾(Кратко житие на Кирил Философ)

성 끼릴의 소천(召天)(Успение Кирилово)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간략생애전은 상세생애전과 그의 전설적 이야기에 근본하여 쓰여진 문헌이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1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7가지의 필사본(препис)이 전해지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15

8) Боню Ангелов, *Из старата българска, руска и сръбска литература*, Kn. 3 (София, 1978), с. 3-4.

세기(1437년) 불가리아본이다.

이 간략생애전은 상세생애전이 전하고 있지 않은 몇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성 키릴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има матери его Маріа)이고 성 키릴이 불가리아 출신으로 (родом сын бльгаринь)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브레갈니짜(Брегалница)에서 계몽활동을 했음을 적고 있다. 이 생애전은 13세기 성 키릴에 대한 숭배와 불가리아역사 속의 민족의 자존심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이 생애전에서 뽑은 관련 구절이다:

По том же шед въ Брегалница, и обрѣтъ ѿ словѣнскаго языка
нѣколко крѣштѣ, и елицѣхъ же не обрѣтѣ, крѣштѣхъ, онъ же крѣстивъ
ихъ и приведе на праславѣна върѣ, и написа въ нмь книги
словѣнскимъ языкомъ...⁹⁾

2) 테살로니끼 전설¹⁰⁾ (Солунска легенда¹¹⁾)

작자미상의 짧고 종교적 색채를 띤 이야기 형식의 글이며 “Слово Кырила Философа, како чѣтри бѣлгаре”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성 키릴 자신이 이야기하는 일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15세기 것으로 원본은 12-13세기로 추정된다.

9) Йордан Иванов, *Български старини из Македония* (София, 1970), с. 285.

10) Старобългарска литература, *Енциклопедичен речник. Съставител-Донка Петканова* (София, 1992), с. 430.

11) 고대 종교문학에서 특출한 기독교 활동가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나 교회의 제일(祭日)이나 사건들을 묘사한 작품들은 매우 일찍부터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교회나 수도원에서 신자들에게 읽혀지는데 전설(legenda)이라는 명칭이 주어지기도 했다. <legenda>는 라틴어의 동사 <lego>의 미래 수동태형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자전(агиография)의 범주에서 이 레겐다(legenda)는 생애전(житие)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Александър Милев, *Гръцките жития на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Увод, текст, превод и обяснителни бележки (София, 1966), с. 9.

이 문헌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기에는 그리 충분한 문헌은 아니다. 이 문헌에서는 성 끼릴이 슬룬태생이 아니라 까파도끼아생으로 다마스쿠스에 서 수학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끼릴 콘스탄틴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비잔틴의 교회활동가이며 작가인 끼릴 알렉산드리스끼(Кирил Александрийски, 370-444년)를 혼돈한 듯 싶다.

이 문헌에 나타난 끼릴의 불가리아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Поше мене Бѹгаре съ радостію великою, и приведохе мене въ град Равнь на рѣцѣ Брѹгалницѣ. Азъ написахъ имъ лѣ в словѣ, азъ ихъ мало ꙗчяхъ, а ѿни сами много прѣобрѣтахъ. Те бо рѣче гѣ православному вѣрѣ христѣство бѣхъ предадѣтъ.¹²⁾

3) 메또디를 위한 슬루즈바¹³⁾(Служба за Методий)

슬루즈바란 교회력에 명시된 일정한 축일이나 시성(канонизация, 謚聖)된 종교적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음률적으로 쓰여진 시형태의 종교적 작품을 말한다. '메또디를 위한 슬루즈바'는 그의 제자인 콘스탄틴 브레슬라프스끼(Константин Преславски)에 의해 쓰여졌으며 가장 오래된 고대불가리아 문헌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슬루즈바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О вачъ сватаа хвалитъ са славно градь Солѹньскыи, Кѹрїле свате и Мѣфодїе, Мисна¹⁴⁾ и Паѹома и Моравьскаа блажене земѣ, славаши

12) Йордан Иванов, Пос. съч., с. 283.

13) 자세한 것은 Старобългарска литература, *Енциклопедичен речник*, с. 422-424, 493을 참고할 것.

14) 비잔틴의 작가들은 자주 불가리아인들을 미지(мнзи), 불가리아를 미지아(мнзия)로 칭하곤 하였다. 이 민족명은 특히 불가리아가 처음으로 비잔틴에게 정복당했던 때(11세기말)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고대 불가리아 작가들 사이에도 퍼지게 된다. 미지아란 현대 불가리아에서의 미지아지방처럼 당시 불가리아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도나우강과 스페라 플라니나(Стара планина) 사이의 지역(동북지역)을 말한다. Александър Милев, *Гръцките жития на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Увод, текст, превод и

и выпаша: благословень богъ. 15)

4) 나움의 생애전 I 16)(Първо житие на Наум Охридски)

성 끼릴과 메또디의 제자였던 나움에 대한 생애전은 세 가지가 전해져 오는데 두 종류의 고대불가리아본(제 1생애전과 제 2생애전)과 그리스본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0세기경 쓰여진 고대불가리아본(제1생애전)으로 말년에 끌리멘트와 함께 활동했던 꾸뜨미체비짜(Кутмичевица, 현 마케도니아 오흐리드Охрид시 근방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에서 가까운 데볼(Девол)의 주교의 요청으로 나움과 가까운 측근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모라비아에서의 슬라브문자의 확산과 계몽활동의 무산, 끌리멘트 오흐리드스끼, 안겔라리 그리고 나움이 베네치아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불가리아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제 1 생애전은 현재 아토스 산의 조그라프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는 16세기 필사본인 **쁘롤로그**에 담겨 있다.

제2생애전에는 나움이 불가리아인이고 끼릴과 메또디가 미지아인과 달마티아인들을 계몽하러 다닐 때부터 그들과 함께 했다고 적고 있다. (проходеште н ччеште рѡд' мусѣнски далматѣнскин)

그리스어로 쓰여진 생애전은 비교적 늦게 발견되었는데(1938년) 이 생애전에는 성 끼릴과 메또디의 초기 계몽활동과 관련된 나움의 활동이 그려져 있고 불가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도 기술되어 있으나 역사적 사실의 기술에 그리 충실치 못한 부분도 눈에 띈다.

обяснителни бележки (София, 1966), с. 184; Иван Дуйчев, *Проучвания върху средновековната българска история и култура* (София, 1981), с. 180.

15) А. Теодоров Балан, *Кирилъ и Методий*, свезка 2, *набожень помень и исторични свидетелства за Кирила и Методия* (София, 1920), с. 69.

16) Божидар Райков, Стефан Кожухаров, Хайнц Миклас, *Каталог на славянските ръкописи в библиотеката на зографския манастир в Света гора* (София, 1994), с. 49; *Кирило-методиевска енциклопедия*, т. II (София, 1985), с. 698-700.

다음은 나움의 두 가지 고대불가리아어로 쓰여진 생애전에서 발췌한 관련 사항이다¹⁷⁾:

- * 생애전 II- Наумъ...прилепи се рав'ноапостолом Константинѣ философѣ и братѣ емѣ Мефодію. Проходеште ччетѣ род мѣсїискии и далматїискии, последова их по вѣсѣд, и яже до стараго Рима.
- * 생애전 II- ...баше во времена сватыхъ Кѣрилла и Меодїа, иже тогда проходахѣ вса страны болгарскїа...

5) 성 끼릴의 쁘롤로즈노 쥐띠에¹⁸⁾(Проложно житие на Кирила)

쁘롤로그(пролог)란 교회력에 따라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일별로 쓰여진 성자전 모음집(주로 생애전과 송사)이라 할 수 있다. 고대 불가리아 문학에는 세 가지의 끼릴과 메또디의 쁘롤로즈노 쥐띠에가 전해져 오는데 Проложно житие на Кирил, Проложно житие на Методий, 그리고 Проложно житие на Кирил и Методий이다. 성 끼릴의 쁘롤로즈노 쥐띠에는 14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쓰여진 필사본들이 전해져 오며 교회력 8월 25일에 들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생애전은 끼릴의 쁘롤로즈노 쥐띠에보다 뒤늦게 불가리아인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사망한 2월 14일과 4월 6일에 각각 들어 있다.

이 문헌에 쓰여진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 * 성 끼릴의 쁘롤로즈노 쥐띠에- ...По семь иде в болгары, проповѣдая Христа. Тако же и въ словѣныи прошедь, вса грады на ччи Христовѣи вѣрѣ, и по Дунаю.¹⁹⁾

17) А. Теодоров Балан, *Кирилъ и Методи*, с. 135-136; Йордан Иванов, *Български старини из Македония* (София, 1970), с. 312.

18) Старобългарска литература, *Енциклопедичен речник*, с. 374-375.

19) А. Теодоров Балан, *Пос.съч.*, с. 35.

* 성 메또디의 뿌를로즈노 쥐띠에- ...Прослахъ же словени крьшения, а Козарии ччитела, а Моравлане епископа, а болгаръ ччитела же и наставника.²⁰⁾

II. 고대 러시아문헌

본 논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을 전해주고 있는 고대 러시아문헌으로서 는 원초연대기(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끼에프 메체르스끼 수도원(Киево-Печерский монастырь)의 수도승 네스토르(Нестор)에 의해 편집된 연대기로서 비잔틴의 게오르기 아마르톨의 연대기를 참고하여 1093년부터 1095년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원초연대기(Начальный летописный свод)를 개작하여 만든 연대기이다. 네스토르는 자신의 원초연대기에 역사적 전설이나 구전되어오는 이야기등을 덧붙였다.²¹⁾

이 연대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Костянтинь же възратився въспять, и иде учить болгарьскаго языка, а Мефодий оста в Моравѣ.²²⁾

III. 고대 그리스 문헌

1) 끌리멘트 오희리드스끼의 상세 생애전(Климентово пространно житие)

오희리드의 주교 테오필락트 오희리드스끼(Теофилакт Охридски)가 쓴

20) Пак там, с. 38.

21) Литература древней Руси. Хрестоматия. Составитель Л.Дмитриев (Москва, 1990), с. 8.

22) 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 Ч.первая. Текст и перевод (М-Л, 1950), с. 22.

성 끼릴과 메또디의 제자인 끌리멘트 오흐리드스끼의 생애전으로 12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생애전은 두 형제의 업적과 끌리멘트의 불가리아에서의 계몽적, 문학적 활동에 대해 쓰고 있으며 두 형제의 5명의 제자들의 이름-고라즈드(Горазд), 끌리멘트(Климент), 사바(Сава), 나움(Наум) 그리고 안겔라리(Ангеларий)-이 명시되어 있다. 불가리아 전설(Legenda Bulgarica)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문헌에서 알 수 있는 끼릴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²³⁾:

Ὅσπερ οὖν καὶ τὴν τῶν Βουλγαρῶν χώραν ἐφώτισαν ἐν τοῖς ἐσχάτοις τοῦτοις καιροῖς πατέρες μακαριοὶ καὶ διδασκαλοὶ...(같은 방법으로 기록한 수도사이며 선생님인 이 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 불가리아 땅에서 포교를 하였으며...)

Τυχόντες οὖν τοῦ εὐταίου τούτου χαρίσματος ἐξευρισχουσι μὲν τὰ Σθλοβενικὰ γράμματα, ἐρμῆνευουσι δὲ τὰς θεοπνευτοῦς γραφὰς ἐκ τῆς ἑλλάδος γλωττῆς εἰς τὴν Βουλγαρικὴν...(...그들은 슬라브문자를 만들어 복음서를 그리스어에서 불가리아어로 번역하고...)

2) 끌리멘트 오흐리드스끼의 간략 생애전 (오흐리드 전설 (Legenda Ochridica)이라고도 불리움)

끌리멘트가 모라비아에서의 박해를 피해 동료들과 불가리아로 피신한 후 현 마케도니아의 오흐리드에서의 활동상을 그린 작품이다. 작자는 미상이다. 이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²⁴⁾:

Μεθοδιῶ τῷ πάνυ διδασκαλῷ θεοσεβείας καὶ τῆς ὀρθοδόξου πίστεως τῷ Μυσῶν ἔθνεϊ.(...메또디는 미지아인들에게는 유명한 선생님이었고...)

23) Александър Милев, *Гръцките жития на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София, 1966), с. 79, 81.

24) Пак там, с. 174-175.

3) 나움의 그리스 생애전(마케도니아 전설이라고도 불리움)

...Κυριλλου και Μεθοδιου οι οποίοι διετριβον τοτε εις τα μερη της Βουλγαριας,...(그때 끼릴과 메또디는 불가리아 지역에 있었고...)25)

IV. 라틴 문헌

1) *Legenda sanctorum Cyrilli et Methodii patronorum Moraviae*
(모라비아 전설이라고도 불리움)

모라비아의 수도사에 의해 14세기 말에 쓰여진 것으로 이탈리아 전설(*Vita cum Translatione S. Clementis*)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Cujus precibus annuens Imperator praenominatum Philosophum cum Methodio germano suo illuc transmisit, mandans ei copiosas expensas dari pro itinere. Egressus vero venit primo ad Bulgaros, quos divina cooperatrice gratia sua praedicatione convertit ad fidem.*(...황제는 철학자(끼릴)와 그의 형 메또디에게 임무를 주고(즉, 모라비아로 가라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기 전에 무엇보다도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신의 가호 하에 그들을 계몽하여 개종시켰다.)26)

2) *Legenda de s. Ludmilla* (체코전설이라고도 불리움)

체코의 공후였던 류드밀라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에 성 끼릴과 메또디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 끼릴의 불가리아에서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

25) Теодоров Балан. *Кирилъ и Методи*. с. 179.

26) Пак там, с. 204.

이 쓰여 있다:

...sanctus Cyrillus, graecis et latinis apicibus sufficientissime instructus, postquam Bulgarium ad fidem Jesu boni convertisset, in nomine sanctae trinitatis et individuae unitatis Moraviam est ingressus,...²⁷⁾(...성 끼릴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완전히 습득하고는 불가리아에 가서 예수의 믿음을 바탕으로 불가리아를 개종시키고 모라비아로 떠났다...)

3) Regnum Sclavorum presbyteri Diocleatis (두클레아 연대기)

12세기에 쓰여진 작자 미상의 세르비아 연대기로서 12세기까지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역사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라틴어로 쓰여있지만 고대불가리아 원본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세기 바르(체르나 고라의 도클레아 지역, 현재의 몬태네그로의 한 도시)에서 활동했을 주교단중 한 명이 썼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 지역의 이름이 연대기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 연대기에는 불가리아, 그리고 성 끼릴과 메또디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는데 불가리아의 발칸반도로의 이주와 형성, 기존 슬라브인들과 그들의 융합, 끼릴의 슬라브문자 창제 및 복음서의 번역활동, 그리고 불가리아에서의 세례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적고 있다.

이 문헌 원본의 부재로 여기서는 불가리아어의 번역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콘스탄틴 철학자는... 하자르국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현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 모두를 압도하고 늘 설교를 통해 모든 지역이 기독교를 믿게 하였다. 그 후 곧 그는 불가리아인들에게 그대 로 행했다.²⁸⁾

27) Пак там, с. 208.

이러한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끼릴이나 메포디, 또는 두 형제가 함께 불가리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짧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헌들의 역사적 기술의 부정확성이나 제 2차적 문헌이라는 이유들로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고 또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불가리아에서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가지 사실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성 폰스판틴 끼릴과 메포디가 과연 어느 민족 출신이었을까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을 먼저 논해보자면, 과연 그들이 불가리아인이 아니었더라면, 아니 최소한 그들이 불가리아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더라면 그들이 불가리아 지역에서 계몽활동을 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의 국적을 논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들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은 그들을 자국민화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 왔는데 불가리아에서는 그들을 불가리아인으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인, 그리스에서는 그가 슬론 태생이라는 점을 들어 그리스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 쓰여진 각국에 현존하는 고대문헌들과 그것들의 필사본을 보아도 이러한 의도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그들이 어느 민족이었나 짐작할 수 있는 예들을 찾아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첫부분에 인용한 “끼릴의 소천(召天)”을 보면 *Сего пропѣднаго ѡца нашего Кѣрїла ѡчѣство имѣше трѣславнии и великии град Сѣлѣнь, въ немже и роди са. рѣдом снѣ Българинѣ*라고 쓰며 그를 불가리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이름만 이 문헌에 마리아라고 적혀 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자료는 성 끼릴의 상세 생애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Въ

28) Мавро Орбини, *Царството на славяните 1601*, Превод от италиански: Божан Христов (София, 1983), с. 138.

Солѣнѣсѣмь градѣ бѣ мужь нѣкын добродольнъ н богатъ, нменемь Львъ, прѣдрже сань драгаскын под стратнгом.(Pr.j.K. II장)
 9세기초부터 비잔틴제국의 한 행정구역(тема)으로 귀속된 솔룬²⁹⁾에는 이미 약 일세기전부터 정착해온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고 끼릴의 아버지는 고위급군대 지휘관중 세 번째 서열에 속하는 두룬가리 (друнгарий, 천~이천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사령관급)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³⁰⁾ 그렇다면 비잔틴 제국에 귀속되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던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 어느 민족 태생이었을까?

하자르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갔을 때 수장(Каган)의 질문에 성 끼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Дѣда нмахъ велнка н славна стлѣ, нже блнзъ цѣра стоаме. Н даннѣю емѣ велію чьсть шѣврѣгь, нзыгнанъ бмьсть, н на странѣ земль шѣдь, обннѣда, н тамо ме родн. Аз же дѣднѣю чьсть прѣжднѣю нше,...(Pr.j.K. IX장)

즉 위대하고 명예를 지니고 있던 그의 할아버지는 왕의 측근이었는데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이국 땅(비잔틴 제국을 뜻함)으로 오게 되었음을 성 끼릴은 설명하고 있다. 먼저 여기서 왕(цар)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왕이 다스리던 비잔틴 주변의 국가는 불가리아뿐이었다. 할아버지 세대로라면 끼릴이 약 826년에 태어났으니 길어야 일세기 전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아조프해와 까스피해 유역에 살고 있던 원불가리아인(Прабългари)들이 현재의 불가리아 북동부 지역으로 이주해 비잔틴과 평화조약을 맺고 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러 슬라브족들과 융합을 시도하며 제1불가리아국을 세운 것이 이미 681년, 한(хан) 아스파루흐(Аспарух, 이스페리흐라고도 불리움)였다. 불가리아의 역사를 둘러볼 때 당시 비잔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 나라라면 불가리아밖에 없었으니 왕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불

29) M. Hussey, *The Byzantine Empire, part 1: Byzantium and its Neighbors* (Cambridge, 1966), pp. 32-35.

30) Franz Grivec, *Konstantin und Method, Lehr der Slaven*. Wiesbaden, 1960, s. 19; *Кирило-методиѣвска енциклопедия*, т. I (София, 19850, с. 616-617.

가리아의 왕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그의 할아버지는 왜 모든 명예와 직책을 버리고 비잔틴으로 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불가리아에는 아직 기독교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독교의 세력이 있었고 당시 현재의 불가리아 지역에 정착하고 있던 슬라브족들은 상당수 기독교를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당시 불가리아왕국의 주도세력이었던 원불가르족(Прабългари)이 기독교를 배격했음은 그 후 왕 보리스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약 865년경) 부딪혔던 지배층 원불가르족들의 반란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끼릴의 선조들은 기독교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끼릴의 할아버지는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던 가까운 비잔틴 제국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성 끼릴과 메또디가 모라비아로 계몽활동을 떠나게 되는 것과 관련지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성 끼릴의 상세생애전을 보면 모라비아국의 공 로스띠슬라프가 당시의 비잔틴 황제 미하일 3세에게 사절단을 보내 자신들에게 슬라브어로 복음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파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Ра̀стиславъ бѣ, моравскыи кнѣзь, бѣгомь на̀ччаемь, събѣтъ сътворн съ кнѣси своиимн моравляни и посла къ цѣрю Мнханлѣ, гѣлю; людемь нашимь поганства се шврѣгшиимь и по хрстианскыи се законь дръжѣимь, ччнтеля не нмамы такового, нже би ны въ свои еззыкь истинннью вѣрѣ, хрстианскью сказаль, ... Да послн ны, влѣдкѣ, епѣска и ччнтеля такового... (Pr. ж. К. XIV장)



(성 끼릴과 메도디가 문자 창제에 몰두하고 있는 장면. 15세기 쿠퍼스베르그 모음집)

이에 황제 미하일 3세는 전체회의를 열어 성 끼릴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모라비아에 가서 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끼릴은 이렇게 대답한다: ...с радостію ндѣ тамо, аще нмають бѣки въ єзыкѣ свон(Pr. ж. К. XIV장). 이에 황제는 자신의 선조들이나 많은 이들이 문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음을 설명하며(Дѣдѣ мон н ѿць мон, н нннн мнѡн, нскавше того, нтсѣтъ обрѣлн, н како азъ могѣ тѡ обрѣстн?) 성 끼릴에게 신약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만약 그가 원한다면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두드리면 열리리니. 하나님은 끼릴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성 끼릴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제자들을 뜻함)과 함께 기도를 올리자 곧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진실된 기도를 듣고 끼릴은 즉시 문자를 만들어 성경구절을 쓰기 시작한다.(Шѡд же фнлосѡфѣ, по прѣвомѣ ѡбычаю на млѣтвѣ се вѡдасть, н сѣ ннѣмн поспѣшннкѣ. Вѣскорт же бѣ емѣ явн, послѣшае млѣтвѣ свонх рабѣ, н абіе сложн пнсмена, н начеть

бестѣ писати еѿ гл҃скѣ, ... Пр.ж.К. XIV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끼릴의 선조가 불가리아왕국에서 쫓겨나 비잔틴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가설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끼릴은 당시 슬라브인(물론 불가리아인들을 포함한)들이 사용하던 구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약 두세대라는 시간의 격차를 들어 끼릴이 그들의 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하여도 당시의 비잔틴제국 주변만 아니라 제국내에도 슬라브인들이 많이 거주하여³¹⁾ 'Вы бо ѡста селѣнанина, да селѣнание вьси чнсто словѣньски бестѣють(Пр.ж.М. V장)'라고 황제 미하일 3세가 성 끼릴과 메또디 형제를 지칭하며 말했듯이 슬론지 지역에서 살던 끼릴은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들의 말을 익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끼릴은 4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성 끼릴의 *베를로즈노 쥐띠에*는 적고 있다: ...и четырма языки философии начив са; и ѡлиньски (그리스어), и римьски (라틴어), сурьски (시리아어), жидовьски (히브리어).³²⁾ 그러나 여기에 슬라브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역시 슬라브인으로서 성 끼릴의 제자였거나 측근이었을 이 생애전 작가가 슬라브어가 성 끼릴의 모국어인 만큼 구태여 나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보았듯이 당시 비잔틴제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던 가장 위협적인 적- 불가리아와 제국내,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던(현 그리스 남단 펠로폰네소스까지) 슬라브인들³³⁾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몇몇 슬라브족들이 새로이 생긴 불가리아 왕국에 속하게 되었으니 비잔틴의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머지 슬라브족들이 불가리아에

31) 6-9세기경 슬론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는 불가리족을 비롯하여 여러 군소 슬라브족들이 정착하여 비잔틴제국의 속민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슬라브어와 그리스어는 슬라브인들의 구어로 자리잡고 있었다. Марин Дринов. *Избрани съчинения*, т. I (София, 1971), с. 294, 304, 319-320, 322, 350-361.

32) Теодоров-Балан, *Кирилъ и Методи*, свезка 2 (София, 1920), с. 34.

33) Марин Дринов, *Пак там*.

협조할 위험도 존재하고 또 비잔틴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그 지역 지배세력에 반발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와 힘겨루기를 하며 세력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기로 비잔틴은 그리스정교를 앞세워 여러 곳에 종교전파 및 계몽활동을 펴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성 끼릴은 사라센과 하자르에 보내지게 된 것이다. 비잔틴왕국은 주변의 슬라브족들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슬라브인들의 모라비아에도 프랑크 왕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뻗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성 끼릴을 다시 그곳에 파견하게 된 것이었다.

슬라브족들이 아무리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안다하더라도 비잔틴은 자국 내의 슬라브족들을 구스리기 위해 그들의 언어인 슬라브어가 필요했고 더욱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모라비아에의 활동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였다. 미하일 3세가 성 끼릴에게 자신의 선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슬라브문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비잔틴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미하일 3세가 성 끼릴에게 슬라브 문자의 창제를 부탁하는데는 그 이유가 있다: 첫째, 끼릴이 슬라브족, 즉 불가르-슬라브족이었음이 알려져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비잔틴이 성 끼릴이 이미 슬라브 문자의 창제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잔틴제국내의 슬라브인들이나 성 끼릴의 아버지처럼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슬라브인들³⁴⁾로부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 끼릴은 미하일 3세의 말대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поспѣшники)과 기도를 드리자 마자(абіе) 문자를 창제하게 되었다고 그의 상세생애전

34) Иван Дуйчев, *Въпросът за византийско-славянските отношения и византийските опити за създаване на славянска азбука през първата половина на IX век* - Известия на института за българска история, 7 (София, 1957), с. 252.

은 쓰고 있다.³⁵⁾ 이 부분은 전설적이고 전기나 생애전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성 끼릴의 능력을 한껏 찬양하고 있다.

여기에 쓰인 부사 <абѣ>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성 끼릴이 이미 오래 전부터 슬라브 문자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으며 기도를 끝내자마자 슬라브문자로 성경구절을 썼음은 그가 이미 한 유형의 슬라브문자를 창제해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³⁶⁾

메또디의 상세생애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게 된다:

... дожде цѣсрь [чвѣдѣвъ] быстрость ѿго, княженнѣ мѣту дасть дръжати словѣнско... како н хоташе ччнтела словѣнѣмъ посылати н първаго архнепѣсѣпа, да бы прочнлѣса въстѣмъ обычаемъ словѣнскимъ н обыкль я по малѣ... Сътвори же въ томъ княженнѣ лѣта многа... (Пр.ж.М. II장)

이 사건은 성 끼릴이 하자르에 계몽활동을 하러 떠나기 전이니 860년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황제 미하일 3세는 비잔틴의 행정구역의 하나인 테마(тема)보다 소규모인 슬라브인들의 거주지역³⁷⁾의 통치를 메또디에게 부

35) 메또디의 상세생애전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적혀있다: ...на молнтвѣ са наложнста н съ ннѣмн, нже блахѣ тогожде дѣха, ѿгоже н си. Да тѣ явн бѣ философѣ словѣнскимъ кннги, н абнѣ чстроинвъ писмена н бесѣдѣ съставль, пѣтн са ять Моравьскаго, понмъ Мефеодня(Пр.ж.М. V장).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Събрани съчинения, с. 188.

36) A.Leskien...*Die von Konstantin aufgestellte Schrift ist so ausgezeichnet, d.h. gibt die slavische Laute, von denen eine grössere Anzahl im Griechischen des 9 Jahrh. gar nicht vorhanden war, ...dass man das Werke nur als das Resultat einer lang andauerten Arbeit betrachtten kann*이라며 오랜 기간 준비된 작업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Grammatik der Altbulgarischen (Altkirchen -slavischen) Sprache*. Heidelberg, 1919, ss. XX-XXI.

37) 여기서 княженнѣ (그리스어로는 ἀρχοντῆς)는 테마(тема)가 세분화되는데 그 중의 한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아르혼파(ἀρχοντας)에 의해 지배되었다. 즉 메또디가 이 직책을 맡게되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장악하는 직책이었다. Ана Стойкова.

탁하며 선생으로서, 또 주교(архиепископ)로서 활동하며 또한 그들의 풍습을 익히고 습득하도록 한다.

비잔틴은 제 슬라브족들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658년경 황제 콘스탄뜨가 남부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지역(현 불가리아의 동서로 펼쳐져 있는 지역)을 공격하여 수 많은 포로들을 소아시아지역(현 터키의 아시아쪽 지역)으로 강제이주 시킨다. 또 그후(688년)에도 유스티니안 2세도 역시 전쟁을 일으켜 포로들을 서북부 소아시아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다.³⁸⁾ 이러한 슬라브족에 대한 강제이주 정책은 발칸반도에 정착하고 있는 슬라브족들의 수를 그나마 줄여보고자 하는 비잔틴의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에서까지 슬라브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위의 성 메또디가 통치하게된 지역의 위치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리스학자 타키아오스(A. Ταχιαου)는 바로 이렇게 강제이주된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³⁹⁾ 좀 더 설득력있는 가설은 여러 슬라브 학자들(프란쯔 드보르니크, 흐리스토포 코도프, 에밀 게오르기예프)에 의해 제기된 슬룬의 북쪽 스트루마(Струма)강 하류에 위치한 지역(ἀρχοντια)을 말하며 바로 끼릴의 간략생애전에 나오는 브레갈니짜(Брегалница)가 유감스럽게도 현존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 근처였다는 것이다.⁴⁰⁾

이렇게 자의견 타의견 끼릴과 메또디는 슬라브인들과 접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자연적으로 그들은 동족인 슬라브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어느때보다도 계몽활동에 더욱 주력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Първоучителят Методий (София, 1995), с. 19.

38) Петър Мутафчиев, *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я на Византия*, т. 1 (София, 1995), с. 310, 324-325; Васил Златарски, *История на българска държава през средните векове*, т. I (София, 1927), с. 160, 175, 207.

39) Антонин-Емил Тахиаос, *Создани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уга Константина-Кирилла до Моравской Миссии- Константин-Кирил философ* (София, 1971), с. 287-288.

40) Эмил Георгиев, *Кирил и Методий. Истината за създателите на българската и славянска писменост* (София, 1969), с. 307-319; Ана Стойкова, *Първоучителят Методий*, с. 20-21.

그후 메포디는 자신이 다스리던 이 슬라브인 거주지역을 뒤로하고 소아시아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 검은 수도복을 입고 학문에만 전념하게 된다 (.....нзбысть княженна. Н шьдъ въ Алнмбъ,⁴¹) ндеже жнвѣтъ сѣтнн оѣцн, пострнгъса, облѣче[са] въ чръны рнзы...а кннгахъ прнлежа. Пр.ж.М. III장) 그의 동생 기릴은 사라센 원정에서 돌아와(855년경⁴²) 그의 형이 가있던 올림푸스의 사원에 합류하여 책에만 몰두하게 된다.(Въ Олумбѣ же шьд къ Мефодіѣ, братѣ своемѣ, тамо жнвѣше, н мѣлтвѣ творе без прѣстаніа къ бѣѣ, тъкмо кнїгамн бестѣдѣе. Пр.ж.К. VII장)

이렇게 두 형제가 속세를 벗어나 소아시아의 올림푸스의 수도원에 모여 “책”과 관련된 일을 하였음이 잘 드러나 있다. 성 메포디가 먼저 수도원에 가서 **а кннгахъ прнлежа**를 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 <прнлежати>는 단지 책을 읽었다는 뜻보다는 “책을 집필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두 형제가 복음서등을 슬라브어로 번역하여 당시 그 지역 주변에 이주되어 살고 있던 슬라브인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그 번역 복음서들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에 이 슬라브인들 중 이미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하며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였고 또 실제로 그 제자들은 두 형제와 함께 고락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끌리멘뜨 오호리드스끼의 간략생애전(Кратко Климентово жити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Съ велнкн ѿць нашъ н бльгарьскн свѣтнлннкъ рода бѣ ꙗ Европнн мнскннкъхъ нже н Бльгарнн многоразумннн ѿвѣдѣ члѣкъ. прѣвѣе же ꙗ Прѣсн олнмьбннскые къ стѣверномѣ океанѣ н къ Мрътовомѣ мору ꙗ Алеѣсандровіе же рѣкы н повелѣнїа ѿганїаше с(а)...⁴³** 그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불가리아인들 중

41) 현 터키의 아시아부분 마라모르 해협 근처에 위치한 산맥으로 그 당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원들이 몰려있던 곳이다.

42) Franz Grivec, *Konstantin und Method*, Lehrer der Slaven. s. 40.

43) Иван Дуйчев, *Проучвания върху средновековната българска история и култура* (София, 1981), с. 168.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같은 문헌에서 'сн мѣжь ѿ чрѣва же мѣтерна...нзбрань быс бѣвн...начн се писанню, прѣложенное съдѣтаніемь лучьдінмь къ снемѣ бльгарскомѣ еззыкѣ ѿ Крнла...н прьвого съ Мефодіемь...44)'라고 적고 있는 것도 끌리멘트가 어렸을 때부터 끼릴과 메포디와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두 형제와 함께 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모라비아에서 쫓겨난 끌리멘트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 곳이라고는 그들의 고향인 불가리아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비잔틴에서 태어나 성 끼릴과 메포디는 불가리아에서 쫓겨나 비잔틴에 정착하게된 가계에 의해 어릴 때부터 당시 그곳에 널리 퍼져 살고 있던 불가리아인들을 비롯한 슬라브족들과의 관계를 어릴 때부터 유지하며 살수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불가리아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문자창제에 주력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메포디가 다스리던 솔룬에서 가까운 슬라브인들의 거주 지역과 또 그들이 한때 머물렀던 소아시아지역의 슬라브인들 사이에서 퍼뜨리면서 계몽활동을 이미 시작하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슬라브문화의 시작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위에 열거한 여러 문헌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었지 않나 여겨진다.

또한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성 끼릴과 메포디가 불가리아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불가리아와 비잔틴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불가리아인이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4) Так там.

*참고지도 (□는 브레갈니짜 지역으로 추측되는 곳이고 ○는 소아시아의 올림푸스산의 수도원이 있었던 지역을 나타냄.)



참고문헌

- А.Теодоров Балан. *Кирилъ и Методи*. свезка 2, набоженъ помень и исторични свидетелства за Кирила и Методия. София, 1920.
- Александър Милев. *Гръцките жития на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Увод, текст, превод и обяснителни бележки. С., 1966.
- Божидар Райков, Стефан Кожухаров, Хайнц Миклас. *Каталог на славянските ръкописи в библиотеката на зографския манастир в Света гора*. София, 1994.
- Ана Стойкова. *Първоучителят Методий*. София, 1995.
- Боню Ангелов. *Из старата българска руска и сръбска литература*. Кн.3, 1978.
- Васил Златарски. *История на българска държава през средните векове*, т. I, София, 1927.
- Донка Петканова. *Константин-Кирил, денница на славянския род*. София, 1994.
- Емил Георгиев. *Кирил и Методий. Истината за създателите на българската и славянска писменост*. София, 1969.
- Иван Дуйчев. *Впросът за византийско-славянските отношения и византийските опити за създаване на славянска азбука през първата половина на IX век*- Известия на института за българска история. 7, София, 1957.
- . *Проучвания върху средновековната българска история и култура*. София, 1981.
- Йордан Иванов. *Български старини из Македония*. София, 1970.
- Кирило-методиевска енциклопедия*, т. II, София, 1985.

- Климент Охридски. *Събрани съчинения*. Т. 3, София, 1973.
- Марин Дринов. *Избрани съчинения*. Т. I, София, 1971.
- Петър Мутафчиев. *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я на Византия*. Т. 1, София, 1995.
- Старобългарска литература, Енциклопедичен речник. Съставител- Донка Петканова. София, 1992.
- August Leskien. *Grammatik der Altbulgarischen (Altkirchen slavischen) Sprache*. Heidelberg, 1919.
- Jagić. A. *Entstehungsgeschichte der kirchenslavischen Sprache*. Berlin, 1913.
- Іван Огјенко. *Костянтин і Мефодій, їх життя та діяльність*. т. II, Варшава, 1928.
- Литература древней Руси. Хрестоматия*. Составитель Л.Дмитриев. Москва, 1990.
- 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 Ч.первая. Текст и перевод. М-Л, 1950.
- Мавро Орбини. *Царството на славяните 1601*. Превод от италиански: Божан Христов. С., 1983.
- Hussey, M. *The Byzantine Empire, part 1: Byzantium and its Neighbors*. Cambridge, 1966.
- Franz Grivec. *Konstantin und Method*. Lehr der Slaven. Wiesbaden, 1960.
- Антонин-Емил Тахиаос. *Создани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уга Константина-Кирилла до Моравской Миссии- Константин-Кирил философ*. София, 1971.

〈Абстракт〉

Шин Уте

В славистиката обикновено е прието, че началото на славянската култура и разпространение на славянската азбука се основава на Моравска Мисия на свети Кирил и Методий. Това мнение има доста Увереност, понеже това се подкрепва от най-верните писмени паметници- Пространно житие на Кирил и Методий.

До сега обаче изследвания върху т.н. второстепени паметници за тях не са направени достатъчно поради липсата на точното им описване на историческо събитие.

Тези странични паметници казват, че св. Кирил и Методий правили просветителна дейност и на българските славяни в Мала Азия и в Брегалница около Солун, която сега не съществува.

С предположението, че баща на двамата братя е потомък на български славянин, който би избягал от България във Византия поради религиозната проблема, може да е уверен, че двамата братя може да имат възможност да контактува с българи и славяни, които живяли във Византия и около Солун.

Още важно събитие, дали св.Кирил и Методий са участвovali в покръстването на България през царуването на Борис I, трябва да бъде изследвано с другите проблеми свързани с дейността на тях.